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 인재 영입 나선다

- WIPO 인사국장 방한, 채용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 지식재산 전문가 및 변리사 대상 국제기구 진출 전략 공유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 및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2. 3.(화) 14시, 대한변리사회 회관(서울시 서초구)에서 한국의 우수 지식재산 인력의 국제무대 진출 확대를 위한 채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UN 산하 지식재산 분야 국제기구

이번 설명회에는 WIPO의 아델라이드 바르비에(Adelaide Barbier) 인사국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WIPO의 인사 정책을 직접 소개하였다. 국내 변리사와 지식재산 전문가, 관련 분야 전공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WIPO 측은 WIPO의 직무 구조와 채용 절차, 국제기구 근무 환경 및 복지 등을 소개하며, 한국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설명회에 앞서 바르비에 인사국장은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등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지식재산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지식재산처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국은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우리 전문가들의 역량은 이미 국제적 수준에 도달해 있다”며, “역량 있는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WIPO와 같은 국제기구에 진출하여 글로벌 지식재산 생태계를 설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WIPO 채용 설명회 개최 사진

담당부서	지식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책임자	과 장	이승관	042-481-5063
		담당자	사무관	윤지영	042-481-5008

사진: 아델라이드 바르비에(Adelaide Barbier) WIPO 인사국장이 2. 3.(화) 14시, 대한변리사회 회관(서울시 서초구)에서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